

## 劉琨과 그의 시

宋 永 程\*

<目 次>

I. 緒 言	1. <扶風歌>
II. 생애와 사적	2. <贈盧謨>
III. 劉琨의 시	IV. 結 語

### I. 緒 言

西晉의 시가는 太康(280~289)의 전성기를 지나면 전반적으로 쇠퇴하여 玄言詩가 성행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조류를 벗어나 나름대로 특색 있는 시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인이 劉琨이다. 이에 대해서 鍾嶸은 《詩品·序》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太康 연간에 三張, 二陸, 兩潘, 一左가 힘차게 다시 일어나 전왕의 뒤를 이어 풍류가 그치지 않았으니 또한 시가의 중흥이다. 永嘉(307~313) 시기에는 黃老를 귀히 여겨 차츰 虛談을 숭상하였다. 이 때의 시는 논리가 그 文辭를 초과하여 밋밋하여 맛이 적었다. 이리하여 東晉에 이르러서도 여파가 여전히 전해져서 孫綽, 許詢과 桓溫, 庾亮 여러 인사들의 시는 모두 平典하여 道德論 같으니 建安 시의 風力은 없어져 버렸다. 이보다 앞서 郭璞은 높이 빼어난 재주로 그 풍격을 새로 바꾸었고, 劉琨은 맑고도 굳건한 기세로 그 아름다움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 풍속

---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을 바꾸지는 못하였다.<sup>1)</sup>

또 <中品>의 「유곤시」조에서는 “그 근원은 王粲에서 나왔다. 매우 슬픈 文辭를 잘 지었으며 맑고 빼어난 기운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 유곤은 본디 훌륭한 文才를 지닌 데다가 또 액운을 만났기 때문에, 국가의 혼란한 참상을 잘 그려내고 감개와 원한에 찬 시어가 많다.”<sup>2)</sup>라고 하여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일반 중국문학사류의 유곤 시에 대한 평가 역시 《詩品》의 이 평가와 유사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유곤의 시는 많지 않다. 유곤 시에 대한 이러한 우호적인 평가는 주로 <扶風歌: 朝發廣莫門>과 이른바 <重贈盧諶> 두 수와 연관이 있으며, 이는 모두 八王의 亂과 五胡十六國과의 전란에 직접 참여하여 그 체험을 노래한 작품이다. 유곤의 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러한 생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晉書》권62 <劉琨傳>의 기록 및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유곤의 생애와 사적을 먼저 살핀 후 두 작품을 고찰하기로 한다.

## II. 생애와 사적

劉琨(271~318)은 字가 越石이요, 中山 魏昌(지금의 河北省 無極縣 동북) 사람으로, 漢나라 中山靖王 劉勝의 후손이다. 조부 劉邁는 相國參軍·散騎常侍를 지냈고, 부친 劉蕃은 光祿大夫의 지위에 올랐다. 유곤은 어려서부터 儁朗하여 范陽의 祖逖과 더불어 雄豪로 이름이 났으며, 26세에 司

- 1) 《詩品·序》: “太康中, 三張·二陸·兩潘·一左, 勃爾復興, 踵武前王, 風流未沫, 亦文章之中興也. 永嘉時貴黃老, 稍尚虛談. 于時篇什, 理過其辭, 淡乎寡味. 遠及江表, 微波尚傳, 孫綽·許詢·桓·庾諸公, 詩皆平典似道德論, 建安風力盡矣. 先是郭景純用儁上之才, 變創其體; 劉越石仗清剛之氣, 贊成厥美. 然彼衆我寡, 未能動俗.”
- 2) 《詩品·中品·晉太尉劉琨晉中郎盧諶》: “其源出於王粲. 善爲悽戾之詞, 自有清拔之氣. 琨既體良才, 又罹厄運, 故善敘喪亂, 多感恨之詞.”

隸從事가 되었다. 젊었을 때에는 黃老思想에 물들어 玄談을 즐기고 조행이 그다지 신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石崇, 賈謐 등과 친하게 지냈던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sup>3)</sup> 즉 征虜將軍 石崇이 河南의 金谷園에서 빈객을 초치하여 매일 賦詩하였는데, 유곤도 그 가운데 참여하여 그의 시는 당시에 상당히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또 秘書監 賈謐이 조정을 參管할 때 京師의 인사들이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이가 없어서, 石崇·歐陽建·陸機·陸雲 등이 文才로 절개를 굽히고 가밀을 섬겼는데, 유곤 형제 역시 그 가운데 들어 이른바 가밀의 二十四友의 하나가 되었다.

이 무렵 이른바 八왕의 亂(291~306)이 일어나 유곤도 그 와중에 휩쓸리게 되지만, 그들 부자가 당시 명망이 있었던 까닭에 비교적 평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惠帝(290~306 재위) 永康 원년(300) 4월 趙王 倫이 賈后를 죽이고 집정하자 유곤은 그의 記室督·從事中郎이 되었다. 倫의 아들 琇가 유곤의 자형인 까닭에 유곤 부자형제는 모두 윤의 신임을 받았다. 이듬해 정월 조왕 윤이 제위를 찬탈하고 아들 과가 황태자가 되자, 유곤은 과의 詹事가 되었다. 이 해 3월 齊王 冏이 조왕 윤의 찬위 사실을 인지하고 許昌(지금의 河南省 許昌市 동쪽)에서 기병하고 成都王 穎·河間王 顥·常山王 義 등 三왕이 호응하여 조왕 윤에 대한 토벌이 시작되자, 유곤은 그 冠軍·假節이 되어 조왕 윤의 핵심 가신인 孫秀의 아들 會와 함께 宿衛兵 3만을 인솔하고 성도왕 영에 항거하여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4월에 惠帝가 복위하고 6월에 제왕 경이 輔政하게 되었을 때, 유곤 부형이 모두 당세의 명망이 있었기에 특별히 용서하여 형 輿를 中書郎에 임명하고 유곤을 尙書左丞에 배수하였다가 곧 司徒左長史로 전임시켰다. 그러나 제왕 경은 뜻을 이룬 후 驕奢하고 권세를 농단하여 민심이 이반하게 되자 302년 12월 장사왕 의에 패하여 살해되었다.

惠帝 永興 원년(304) 8월 흉노 左賢王 劉淵이 離石(지금의 山西省 離石

3) 張溥, 《漢魏六朝百三家集題辭注·劉中山集》(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1): “越石兄弟與石崇賈謐友善, 金谷文詠, 秘書唱和.”

縣)에서 기병하여 서진에 반기를 들고 그 해 10월 左國城(지금의 山西省 離石縣 동북)에서 漢王을 칭하면서 이른바 五胡의 亂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북방 소수민족의 서진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이 해 11월 惠帝는 하간왕 옹의 장수 張方의 협박으로 長安에 行幸하였다가 2년 뒤 光熙 원년(306) 5월에 東海王 越의 주선으로 洛陽으로 돌아왔다. 유곤 부자는 이 와중에 휩쓸려 우여곡절을 겪는다. 즉 永興 2년 9월 豫州刺史 劉喬가 허창의 范陽王 虓를 공격하였는데, 유곤은 汝南太守 杜育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그를 구원하였지만, 도착하기 전에 범양왕 효는 패하였고 유곤은 효와 함께 河北으로 달아났다. 유곤의 부모는 이 때 劉喬에게 붙잡혔다. 유곤은 冀州刺史 溫羨을 달래어 효에게 양위하도록 하였다. 효는 冀州(治所는 지금의 河北省 高邑縣 서남)를 다스리면서 유곤을 幽州(治所는 지금의 北京市 서남)로 파견, 幽州刺史 王浚에게 지원군을 청하여 突騎 8백 인을 얻어, 황하를 건너 廩丘(지금의 山東省 鄆城縣 서북)에서 東平王 楙를 격파하고, 남으로 劉喬를 쫓고 부모를 구하였다. 12월에는 범양왕 효를 도와 성도왕 영의 장수 石超를 베었다. 그리고 諸軍을 통솔하여 長安으로부터 大駕를 맞이하였는데, 이 공훈으로 유곤은 廣武侯에 봉해졌다.

惠帝 光熙 원년(306)에 并州刺史가 되고, 振威將軍·領匈奴中郎將을 더하였다. 16년 간에 걸친 팔왕의 난은 왕실 내부의 권력투쟁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민족 통치계층의 세력을 강화시켜 결국 이른바 五胡十六國으로 불리는 소수민족 왕국의 난립을 초래하여 중원 지방을 전란에 휩싸이게 하였다. 유곤의 대표작 <扶風歌: 朝發廣莫門>은 그가 洛陽을 떠나 并州(治所는 지금의 山西省 太原市 서남)로 부임하는 도중 이러한 전란으로 인한 참상을 목도하고 지은 작품이다. 《晉書·劉琨傳》의 기록에 의하면, 이 때 東嬴公 騰이 晉陽(지금의 山西省 太原市 서남)으로부터 鄴(지금의 河北省 臨漳縣 서남 鄴鎮)을 鎮守하였는데, 병주 땅에 饑荒이 심하여 백성들이 등을 따라 남하하고 남은 인구는 2만이 되지 않았으며, 寇賊이 횡행하고 길은 끊어졌다고 한다.<sup>4)</sup> 그래서 유곤은 군사 천 여 인을 모아 轉戰

하며 진양에까지 이르렀는데 당시 진양의 모습을 《晉書·劉琨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관아는 이미 불타 버리고 시체가 즐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 자는 굶주림에 여위어 사람 꼴이 아니었으며 荊棘이 숲을 이루고 豺狼이 길에 가득하였다. 유곤은 荊棘을 베어내고 해골을 거두어 묻고 관아와 市獄을 건축하는데, 寇盜가 번갈아 엄습해 와 항상 성문이 전장이 되었으며, 백성은 방패를 짊어지고 밭을 갈고 동개를 차고 김을 매어야 할 정도였다.<sup>5)</sup>

유곤이 백성들을 위무하고 물정을 파악하며 다스린 지 1년이 채 안 되어 떠났던 사람들도 차츰 돌아와 마을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蕃도 와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本傳의 기록에 의하면, 유곤은 懷撫는 잘하였으나 控御를 잘 못하여 귀속한 자가 하루에 수천 명이지만 떠나는 자도 끊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은 평소에 호사하고 성색을 좋아하여, 비록 잠시 矯勵하였으나 금방 다시 縱逸해졌다고 한다.<sup>6)</sup> 그가 결국 큰 일을 이루는 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성격과 무관하지 않았다.

河南의 徐潤이라는 사람이 음률에 밝고 貴勢를 찾아다니며 유곤을 그를 아껴 晉陽令에 임명하였다. 奮威護軍 令狐盛은 성품이 강직하여 자주 이 문제로 유곤에게 간하고 서운을 배제하라고 하였으나 유곤은 듣지 않았다. 그런데 서운이 영호성이 유곤에게 稱帝를 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영호성을 비방하자, 유곤의 모친이 그 잘못을 지적하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유곤은 앞뒤 살피지 않고 영호성을 죽여버렸다. 그러자 영호성의 아들 泥는

- 4) 《晉書》 권62 <劉琨傳>, p.1681: “時東瀛公騰自晉陽鎮鄴, 并土饑荒, 百姓隨騰南下, 餘戶不滿二萬, 寇賊縱橫, 道路斷塞.”
- 5) 같은 책, 같은 곳: “(晉陽)府寺焚毀, 僵尸蔽之, 其有存者, 飢羸無復人色, 荊棘成林, 豺狼滿道. 琨翦除荊棘, 收葬枯骸, 造府朝, 建市獄, 寇盜互來掩襲, 恒以城門爲戰場, 百姓負楯以耕, 屬鞭而耨.”
- 6) 같은 책, 같은 곳: “琨善於懷撫, 而短於控御, 一日之中, 雖歸者數千, 去者亦以相繼. 然素奢豪, 嗜聲色, 雖暫自矯勵, 而輒復縱逸.”

漢王 劉聰에게로 달아나 嚮導가 되어, 劉曜의 아들 粲과 함께 진양을 기습하여 함락하였다. 太原太守 高喬가 유충에게 항복하고 유곤의 부모는 모두 해를 당하였다. 이에 앞서 선비족 單于 拓拔猗廆가 동영공 등을 구제한 공이 있어 유곤이 그 동생 猗盧를 代郡公으로 임명한 적이 있는데, 유곤은 의로를 인솔하여 힘을 모아 20만 병력으로 진양을 수복하였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추격하였으나 이길 수는 없었다. 의로는 유충을 멸할 수 없다고 보고 유곤에게 牛羊과 車馬를 남기고 떠나면서 장수 姬澹·段繁 등을 남겨 진양을 지키도록 하였다. 유곤은 복수하고자 하였으나 힘이 약해 어쩔 수 없이 陽邑城(지금의 山西省 太谷縣 동북)으로 옮겨 흩어진 무리들을 불러모았다.

313년 4월 서진의 마지막 왕 愍帝(313-317 재위)가 즉위한 뒤 유곤은 大將軍·都督并州諸軍事가 되고 여기에 散騎常侍·假節을 더하게 되었다. 이 때 유곤은 한편으로는 劉聰과 대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석륵과 대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는 이 때 올린 <表>에 잘 나타나 있다.

石勒은 襄國(지금의 河北省 邢台市)에 웅거하여 臣과는 산을 격하고 있어서, 寇騎가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臣의 성에 이르니, 同惡이 어울려 그 무리가 실로 많습니다. 동북으로부터 여덟 고을 중에 석륵이 일곱을 멸하였으니, 先朝가 물려주신 것 중 남은 것은 오직 臣뿐이옵니다. 그래서 석륵은 조석으로 謀慮하여 臣을 도모할 계책만을 내어 틈을 엿보아 약탈이 끊임없으니, 戎士가 갑옷을 벗을 수 없고 백성이 들판에 나갈 수 없습니다. 天網이 펼쳐졌으나 靈澤이 아직 미치지 못하여, 臣은 오직 혈혈단신으로 도적과 짝합니다. 수비에 치중하자니 劉聰의 誅殺이 지체되고, 나아가 토벌하자니 石勒이 배후를 쳐들어와서 進退唯谷이요 首尾狼狽이옵니다.<sup>7)</sup>

7) 같은 책, p.1684: “勒據襄國, 與臣隔山, 寇騎朝發, 夕及臣城, 同惡相求, 其徒實繁. 自東北八州, 勒滅其七, 先朝所授, 存者唯臣. 是以勒朝夕謀慮, 以圖臣爲計, 關伺間隙, 戎士不得解甲, 百姓不得在野. 天網雖張, 靈澤未及, 唯臣子然與寇爲伍, 自守則稽聰之誅, 進討則勒襲其後, 進退唯谷, 首尾狼狽.”

愍帝 建興 3년(315)에 유곤은 司空·都督并冀幽三州諸軍事에 除授되었으나, <表>를 올려 司空은 사양하고 都督은 접수하였다. 유곤은 猗盧와 劉聰을 토벌키로 기약을 하였으나, 얼마 안 있어 의로는 그 아들 六脩에게 살해되고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그 무리들은 앞서 의로에게 볼모로 가 있던 유곤의 아들 遵에게 모두 붙었다. 그러자 준은 姬澹등과 함께 의로의 무리 3만, 馬牛羊 10만을 이끌고 모두 유곤에게 귀의하였다. 유곤은 이로 인하여 다시 진흥하여, 수백의 기병을 이끌고 이들을 平城(지금의 山西省 大同市 동북)에서 거두어들였다. 이 때 마침 石勒이 樂平(지금의 山西省 昔陽縣)을 공격하자 태수 韓據가 유곤에게 구원을 청하였는데, 유곤은 많은 무리가 새로 들어온 것에 고무되어 그 세를 이용하여 직접 석륵을 위협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귀의해온 이들이 晉人이긴 하나 오래도록 먼 변방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恩義에 익숙하지 않아 法御하기 어려우므로 잠시 수비에 치중하고 힘을 기르면서 그들을 감화시킨 뒤에 실행하지는 회담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결국은 석륵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얼마 안 있어 또 가뭄까지 닥쳐 유곤은 매우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幽州刺史 段匹磾가 자주 편지를 보내어 함께 왕실을 돕자고 요청해왔다. 유곤이 이에 응하여 무리를 이끌고 그에게 가자, 필제는 그를 보고 매우 서로 존중하여 유곤과 혼사를 맺고 형제가 되기로 언약하였다.

317년 서도 洛陽을 못 지키고 元帝(317~322)가 강남에서 즉위하였는데, 유곤이 長史 溫嶠를 보내어 勸進하였다. 이에 원제는 “남북이 아득히 멀지만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하며, 몸은 만리 밖에 있으나 마음은 지척에 있소. 그대는 華戎을 撫寧하고 醜類에게 징벌을 가하시오.”라고 답을 하였다.

建武 元年(317) 유곤은 필제와 석륵 토벌을 기약하고, 필제는 유곤을 大都督으로 삼아 맹서를 하고, 사방 수장에게 격문을 보내어 모두 襄國(지금의 河北省 邢台市)에 모이도록 하였다. 유곤과 필제는 固安(지금의 河北省 易縣 동남)에 進屯하여 衆軍을 기다렸다. 그러나 필제의 從弟 末波가

석록의 厚賂를 받고 홀로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그 계책을 방해하였는데, 유곤과 필제는 세력이 약하여 후퇴하였다. 이 해에 元帝는 유곤에게 侍中·太尉를 제수하였다.

이듬해 정월 필제가 형을 奔喪하자 유곤은 아들 羣을 보내어 문상하였는데, 말파가 무리를 이끌고 필제를 요격하고 군을 붙잡았다. 말파는 군에게 厚禮하고, 유곤을 幽州刺史로 삼아 함께 결맹하여 필제를 습격하자고 약속하고, 몰래 사신을 파견하여 군의 편지를 보내어 유곤에게 內應을 청하려 하였는데, 사신이 필제의 순라 기병에게 붙잡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유곤은 필제를 만나러 왔다가 붙잡혀 억류되었다.

《晉書·劉琨傳》에 의하면, 애초에 유곤은 진양으로 갈 때에 危亡이 닥쳐 큰 치욕을 씻지 못할까 염려하였고, 또한 夷狄은 義伏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았으나, 지성을 쏟으면 만에 하나 요행이 있으리라 생각하였으며, 將領 佐吏들을 볼 때마다 강개한 어투로 그 길이 궁함을 슬퍼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賊壘에서 죽고자 하였는데, 이 계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마침내 필제에게 붙잡혔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스스로 알고도 神色이 편안하였다고 한다.<sup>8)</sup> 이 때 5언시 “握中有懸璧”詩를 지어 그의 別駕 盧諶에게 부쳤다.

이 해 5월 유곤은 마침내 필제에게 살해되었으니, 이 때 나이 48세였다. 아들과 조카 6인이 모두 해를 당하였다. 후에 侍中太尉에 추증되고 “愍”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 Ⅲ. 劉琨의 시

유곤의 시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5언시 <扶風歌> 朝發廣莫

8) 같은 책, p.1686: “初, 琨之去晉陽也, 慮及危亡而大恥不雪, 亦知夷狄難以義伏, 冀輸寫至誠, 僥倖萬一. 每見將佐, 發言慷慨, 悲其道窮, 欲率部曲死於賊壘. 斯謀未果, 竟爲匹磾所拘. 自知必死, 神色怡如.”

門>과 이른바 <重贈盧諶> 두 수가 있으며, 4언시 <答盧諶詩> 8장이 있다. 이 중 <答盧諶詩> 8장은 盧諶이 유곤에게 보낸 4언시 <贈劉琨詩> 20장에 대한 답시로, 유곤의 시인으로서의 명성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 평범한 작품이다. 유곤을 시인으로 알린 대표작은 5언시 두 수인데, 그 중 후자는 제목이 <贈盧諶>이어야 옳다. 먼저 이 점과 기타 유곤의 시로 거론되는 작품에 대해 살핀 후 대표작 두 수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른바 <重贈盧諶>은 《藝文類聚》 권31 <贈答>에 “晉劉琨 <贈盧諶詩>”라고 하여 제목의 “重”자를 빼고 적은 후, “握中有懸壁”시 제23구 이하 8구를 수록하고 있다.<sup>9)</sup> 또 《晉書·劉琨傳》에서도 유곤이 “5언시를 지어 노심에게 주어 ‘손에는懸黎壁 고운 옥 있어’라고 하였는데, 유곤의 시는託意가 非常하였으나 노심이 평소에 奇略이 없어 평범한 말로 唱和하여, 유곤의 내심과는 매우 어긋났기에 거듭[重] 시를 지어 주었다.”<sup>10)</sup>라고 하여, 유곤의 “握中有懸壁”시는 제목이 <贈盧諶>이고 다시 지어보낸 것이 <重贈盧諶>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重贈盧諶>은 어느 작품인가? 노심의 <重贈劉琨詩>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그것이다. 《藝文類聚》에는 앞의 <贈盧諶詩> 다음에 “又 <重贈劉琨詩>”라고 하고 이른바 노심의 <重贈劉琨詩>를 인용하고 있다.<sup>11)</sup> 그런데 이에 의하면 “유곤이 유곤에게 준 시”가 되어 이상해진다. 그래서 이 책을 교감한 汪紹楹은 <校註>에서 “생각건대 이 시가 유곤 아래에 연결되어 있다면 제목은 <다시 유곤에게 줌(重贈劉琨)>이라고 해서 안 되고 마땅히 <다시 노심에게 줌(重贈盧諶)>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잘못이 있다. 馮惟訥은 <晉詩紀>에서 아예 노심의 시라고 고쳐버렸지만, 시의 내용을 따져보면 바로 유곤이 노심에게 답한 시이다. 틀린 것 같

9) 汪紹楹 校, 《藝文類聚·上》(上海古籍出版社, 1985. 3), p.551.  
 10) 《晉書》 권62 <劉琨傳> pp.1686-1687: “爲五言詩贈其別駕盧諶曰: ‘握中有懸壁, ……’ 琨詩託意非常, ……諶素無奇略, 以常詞酬和, 殊乖琨心, 重以詩贈之.”  
 11) 汪紹楹 校, 앞의 책, p.551.

다.”<sup>12)</sup>라고 하여, 시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목을 유곤의 <重贈盧諶>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작품의 내용을 통하여 이 점을 밝히기 위해 먼저 노심의 <答劉琨詩>를 보자.

- |                      |       |
|----------------------|-------|
| 1. 수후주는 한수 가서 생산되는 것 | 隨寶產漢濱 |
| 2. 이 귀한 야광주를 펼쳐 놓으면; | 摘此夜光眞 |
| 3. 卞和의 힘 빌지 않고 유명해지니 | 不待卞和顯 |
| 4. 저절로 절세 보옥 되는 법이오. | 自爲命世珍 |

이 시는 殘詩이지만 그 내용이 유곤의 <贈盧諶>의 제1,2구 “손에는懸黎璧 고운 옥 있어, 근본은 형산의 옥돌이지요(握中有懸璧, 本自荊山璆).”에 대한 화답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이른바 노심의 <重贈劉琨詩>를 보자.

- |                        |       |
|------------------------|-------|
| 1. 벽옥은 식자 통해 유명해지고     | 璧由識者顯 |
| 2. 비룡도 구름 타야 날 수 있다오.  | 龍因慶雲翔 |
| 3. 가시나무 설곳이 되지 못하여     | 茨棘非所憇 |
| 4. 새는 날아 높은 산 찾아 떠났소.  | 翰飛遊高岡 |
| 5. 내 노래는 순임금의 <구소> 아니니 | 余音非九韶 |
| 6. 무엇으로 봉황을 바랄 수 있소?   | 何以儀鳳凰 |
| 7. 새 성은 仙人들의 지포 아니니    | 新城非芝圃 |
| 8. 어찌해야 난초를 심을 수 있소?   | 曷由植蘭芳 |

이 시의 제1구는 노심 시에 대한 반론임이 분명하므로 노심의 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汪紹楹의 지적처럼 이는 유곤의 <重贈盧諶>이 되어야 한다.<sup>13)</sup> 이 밖에 크고 무성한 소나무가 베어져 궁전의 들보가 된 것을 읊어

12) 같은 책, 같은 곳, <校註>: “按本詩系劉琨下, 則題不當云<重贈劉琨>, 疑當作<重贈盧諶>, 此有訛誤. 馮惟訥<晉詩紀>逕改作盧諶詩, 按詩義, 乃劉答盧詩, 疑非.”

1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喻斌, <劉琨盧諶贈答詩考辨>(《武當學刊(哲學社會

그 내용이 《莊子·山木》의 “材”와 “不材”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시 <扶風歌: 南山石嵬嵬>가 있는데, 이 시는 《古詩紀》에는 漢詩에 편입되어 있지만, 근인 遂欽立은 《太平御覽》과 《事類賦》에 의거하여 유곤의 시로 보았으나,<sup>14)</sup> 아직은 더 정확한 고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扶風歌>

- |                        |       |
|------------------------|-------|
| 1. 아침에 광막문을 떠나와서는      | 朝發廣莫門 |
| 2. 저녁에 단수산에 여장을 풀다.    | 莫宿丹水山 |
| 3. 왼손으로 번악궁 끌어당기고      | 左手彎繁弱 |
| 4. 오른손은 용연검 휘둘러본다.     | 右手揮龍淵 |
| 5. 고개 돌려 궁궐을 바라보고서     | 顧瞻望宮闕 |
| 6. 순식간에 빠른 수레 몰고 달린다.  | 俯仰御飛軒 |
| 7. 안장에 기대어 서 지나긴 탄식    | 據鞍長歎息 |
| 8. 눈물은 샘물처럼 줄줄 흐른다.    | 淚下如流泉 |
| 9. 우뚝한 소나무에 말을 매고서     | 繫馬長松下 |
| 10. 높은 산 꼭대기서 안장을 푸네.  | 發鞍高岳頭 |
| 11. 위잉잉 슬픈 바람 불어서 오고   | 烈烈悲風起 |
| 12. 조울줄 산골 물은 흘러서 가네.  | 泠泠澗水流 |
| 13. 손 흔들고 긴 이별 하려고 하니  | 揮手長相謝 |
| 14. 목이 메어 말조차 할 수가 없다. | 哽咽不能言 |
| 15. 뜬구름은 날 위해 멈추어서고    | 浮雲爲我結 |
| 16. 새조차 나 때문에 배회를 한다.  | 歸鳥爲我旋 |
| 17. 집 떠나서 나날이 멀어만 지니   | 去家日已遠 |
| 18. 어찌 알랴 죽을지 살아있을지?   | 安知存與亡 |
| 19. 북받치는 마음에 외진 숲 속에   | 慷慨窮林中 |
| 20. 무릎 안고 호올로 상심에 젖네.  | 抱膝獨摧藏 |
| 21. 사슴들은 내 앞에서 한가히 놀고  | 麋鹿遊我前 |
| 22. 원숭이는 내 곁에서 장난을 친다. | 猿猴戲我側 |

科學版)》15:1) 참조.

14) 遂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 p.850.

23. 노자와 식량 이미 떨어졌지만	資糧既乏盡
24. 고비와 고사린들 어찌 먹으랴?	薇蕨安可食
25. 고삐 잡고 무리들에 명을 내리고	攬轡命徒侶
26. 깎아지른 암벽에서 휘파람 부네.	吟嘯絕巖中
27. 군자의 도 쇠미해져 버린 뒤에도	君子道微矣
28. 공자는 固窮節을 잃지 않았네.	夫子故有窮
29. 이릉 장군 개신 기약 지키지 못해	惟昔李騫期
30. 부득이 흉노 왕에 기탁했으나,	寄在匈奴庭
31. 충신으로 도리어 죄 얻었으니	忠信反獲罪
32. 한 무제는 밝게 보지 못하였었다.	漢武不見明
33. 나 이제 마치려네 이 내 노래를	我欲競此曲
34. 이 내 노래 구슬프고 길기도 하네.	此曲悲且長
35. 두어라 하지 말자 새로운 말은	棄置勿重陳
36. 새로운 말 내 맘을 상하게 하니.	重陳令心傷

이 시는 유공이 병주자사가 되어 낙양을 떠나 임지인 병주로 가는 도중 목도한 참상을 읊은 작품이다. 네 구절을 하나의 韻脚으로 하여 換韻하고 있는데, 환운 부분을 경계로 내용상의 단락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4 네 구는 낙양을 떠나는 첫 여정에 대한 서술이다. 아침에 낙양성 북문인 廣莫門을 출발하여 저녁에 지금의 山西省 高平縣 북쪽의 丹水山에 도착하여 하루를 묵는 여정 동안 그는 명궁인 번약궁과 명검인 용연검을 높이 들고 爲國獻身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5-8 네 구는 제1구를 이어받아, 시인이 낙양을 떠나며 질주하는 수레에서 궁궐을 돌아보는, 아쉬움과 근심이 뒤섞인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9-12 네 구는 제2구를 이어받아, 단수산 長松 아래 말을 매고 휴식을 취할 당시의 정경이다. 13-16 네 구는 손을 흔들어 이제 낙양성을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17-20 네 구는 집을 떠나 목숨의 존망조차 알 수 없는 전장으로 나날이 다가가야 할 悽愴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다. 21-24 네 구는 도중의 황량하고 곤핍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제24구에는 伯夷·

叔齊가 首陽山에 은거하면서 采薇하였다는 《史記》의 기록이 전고로 활용되고 있다. 유곤이 병주로 부임하기 위해 낙양을 떠난 것이 음력 9월말이니 이 때에는 고비나 고사리가 있을 리 없음은 당연하다. 이상은 부임 도중의 풍경 묘사를 위주로 하면서 서정을 가미한 부분으로 이 시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25-28 네 구는 공자가 陳나라에서 양식이 떨어져 子路가 성난 낫빛으로 공자에게 군자도 곤궁함이 있느냐고 묻자 공자가 군자는 본디 곤궁하지만 소인은 곤궁하면 분수에 넘치게 된다고 한 《論語》의 기록<sup>15)</sup>을 전고로 활용하여, 곤궁하지만 그 속에서 더욱 의지를 굳건히 불태우자는 다짐으로 자신과 부하들을 독려함을 보여준다. 29-32 네 구는 5천의 병력으로 흉노의 8만 대군에 포위된 채 8일간 전투를 벌인 끝에 식량이 떨어지고 구원병이 오지 않아 부득이 흉노에 항복함으로써, 본래는 충신이었으나 도리어 역적으로 몰리어 가족이 族滅된 李陵의 일<sup>16)</sup>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유곤이 이릉의 일을 빌어 자신의 의지를 밝힌 것인데,<sup>17)</sup> 31,32 두 구에서 충신이 도리어 죄를 뒤집어 쓴 것은 漢 武帝가 사실을 정확히 밝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자신도 미래에 이릉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의 실제 생애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詩讖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네 구는 슬픈 노래를 그만둠으로써 슬픔을 억제하겠다는 마무리이다. 이상은 서정을 위주로 하는 시의 후반부로 고궁절의 의지와 함께 충신이 오히려 죄를 덮어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5) 《論語·衛靈公》: “夫子在陳絕糧, 子路慍, 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

16) 《史記》 권109 <李將軍列傳> pp.2877-2878: “天漢二年秋, ……使陵將其射士步兵五千人出居延北可千餘里, 欲以分匈奴兵, ……陵既至期還, 而單于以兵八萬圍擊陵軍. 陵軍五千人, ……且引且戰, 連鬪八日, 還未到居延百餘里, 匈奴遮狹絕道. 陵食乏而救兵不到, 虜急擊招降陵. 陵曰: ‘無面目報陛下.’ 遂降匈奴. ……漢聞, 族陵母妻子.”

17) 陳沆, 《詩比興箋》(香港: 中華書局, 1965. 4), p.60: “時琨領匈奴中郎將, 故借李陵見志.”

유곤에게는 병주자사 부임 도중에 올린 <表>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의 부임이 수많은 곤고를 겪고 참상을 목도하는 과정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 시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9월 말에 출발하니, 길과 산이 험준하고 도적이 길을 막아, 매번 적은 인원으로 많은 무리를 공격하며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가, 간난과 위협에 넘어지며 온갖 고생을 하여, 이날 壺口關(지금의 山西省 長治縣 동남 壺口)에 이르렀습니다. 臣이 병주 강역에 들어온 이후에 곤핍을 목도하니, (사람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열에 둘도 남지 않았으며, 노약자를 부축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자는 처자식을 팔아 살아서 서로 버리고, 죽어서는 위협에 버려져 백골이 들판에 널려 있으니,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和氣를 상하게 합니다. 수만 명의 도적 떼가 사방의 산을 에워싸고 있어, 발자국만 떼어놓으면 약탈을 당하고 눈만 뜨면 도적을 봅니다.<sup>18)</sup>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그의 정회를 소박한 시어로 토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풍격이 豪邁하면서도 悲壯하여, 이 작품은 “본디 훌륭한 文才를 지닌 데다가 또 액운을 만났기 때문에, 국가의 혼란한 참상을 잘 그려내고 감개와 원한에 찬 시어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 시는 “매우 슬픈 文辭를 잘 지었으며 맑고 빼어난 기운[清拔之氣]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한 종영의 평가에 부합한다.

## 2. <贈盧諶>

1. 손에는 懸黎璧 고운 옥 있어
2. 근본은 형산의 옥돌이지요.

握中有懸璧  
本自荊山璆

18) 《晉書》 권62 <劉琨傳> p.1680: “九月末得發，道嶮山峻，胡寇塞路，輒以少擊衆，冒險而進，頓伏艱危，辛苦備嘗，即日達壺口關。臣自涉州疆目睹困乏，流移四散，十不存二，携老扶弱，不絕於路。及其在者，鬻賣妻子，生相捐棄，死亡委危，白骨橫野，哀呼之聲，感傷和氣。群胡數萬，周匝四山，動足遇掠，開目覩寇。”

- |                          |       |
|--------------------------|-------|
| 3. 생각하면 태공망 그분께서도        | 惟彼太公望 |
| 4. 예전에는 위수 가 낚시꾼이요.      | 昔在渭濱叟 |
| 5. 鄧禹는 무엇에 감격을 하여        | 鄧生何感激 |
| 6. 천리를 멀다 앓고 찾아왔는고.      | 千里來相求 |
| 7. 백등에는 다행히 곡역후 있고       | 白登幸曲逆 |
| 8. 홍문에선 유후를 의지했다고.       | 鴻門賴留侯 |
| 9. 중이는 다섯 현인 임용하였고       | 重耳任五賢 |
| 10. 소백은 떠 쓴 이를 증용하였소.    | 小白相射鉤 |
| 11. 저 두 패자 興隆케 할 수 있다면   | 苟能隆二伯 |
| 12. 네 편 내 편 따질 게 무에 있겠소. | 安問黨與讎 |
| 13. 밤중에 베개 잡고 탄식을 하며     | 中夜無枕歎 |
| 14. 이들과의 교유를 생각해 보오.     | 想與數子遊 |
| 15. 내 늙은 지 오래도 되었나보오     | 吾衰久矣夫 |
| 16. 어찌하여 주공 꿈도 못 꾸는지요.   | 何其不夢周 |
| 17. 뉘 말이고, 성인은 천명에 응해    | 誰云聖達節 |
| 18. 통달하여 천명 알아 근심 없다고.   | 知命故不憂 |
| 19. 중니는 기린 잡음 비통해 하여     | 宣尼悲獲麟 |
| 20. 서쪽 사냥 공자를 울게 했다고.    | 西狩涕孔丘 |
| 21. 공업은 이를 겨를 아직 없는데     | 功業未及建 |
| 22. 석양은 서쪽으로 홀연히 지고,     | 夕陽忽西流 |
| 23. 세월은 이 내 인생 기다리잖고     | 時哉不我與 |
| 24. 흘러가는 구름처럼 떠나버렸소.     | 去乎若雲浮 |
| 25. 붉은 열매 센바람에 다 떨어지고    | 朱實隕勁風 |
| 26. 무성한 꽃 흰 가을에 모두 졌다오.  | 繁花落素秋 |
| 27. 좁은 길에 좋은 수레 뒤집어지니    | 狹路傾華蓋 |
| 28. 말 놀라서 두 끌채가 부러졌다오.   | 駭駟摧雙轡 |
| 29. 백 번 천 번 단련한 굳은 강철이   | 何意百鍊剛 |
| 30. 손가락의 반지 될 줄 어찌 알았소?  | 化爲繞指柔 |

이 시는 유곤이 段匹磾에게 억류되어 죽기 직전 노심에게 보낸 것이다. 盧諶은 字는 子諒이요 范陽(治所는 지금의 河北省 涿縣) 사람으로, 일찍이 유곤의 主簿와 從事中郎을 지냈다. 《晉書·劉琨傳》에 의하면 이 시는

“託意가 非常하니 幽憤을 드러내어 멀리 張良과 陳平을 생각하고 鴻門과 白登의 일에 감격하여 이로써 노심을 자극한 것이지만, 노심은 평소에 奇略이 없어 평범한 말로 唱和할 뿐 유곤의 내심과는 매우 어긋났기에, 거듭 시를 지어주니 이에 유곤에게 말하기를 ‘前篇은 帝王의 大志라 人臣이 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였다.”<sup>19)</sup>고 한다. 이처럼 시에 기탁한 의미가 깊다는 것은 작품 속의 전고 활용이 그 전제가 된다. 이 시에는 많은 전고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2 두 구는 《戰國策》의 “梁나라에는 懸黎가 있고 楚나라에는 和璞이 있으니 천하의 名器이다.”<sup>20)</sup>라고 한 전고를 활용하여, 아무리 훌륭한 미옥도 본래는 산골짜기의 玉璞에서 나오듯이 역사상 큰 성취를 남긴 위대한 인물은 본디 민간의 이름 없는 인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노심의 자질이 뛰어난을 비유하고 있다.

3-14의 열두 구는 모두 역사상 실존 인물을 전고로 취하였다. 3,4 두 구는 周 文王이 사냥을 나갔다가 渭水의 북쪽에서 낚시 중이던 태공망 姜尙을 만났다는 《史記》의 기록<sup>21)</sup>을 전고로 활용하여 훌륭한 재상 태공망도 본래는 위수 가의 노인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5,6 두 구는 南陽(지금의 河南省 南陽縣) 사람으로 후한 光武帝를 찾아 황하를 건너 鄴(지금의 河南省 臨漳縣)까지 찾아와 큰공을 세우고 나중에 大司馬까지 오른 鄧禹의 이야기<sup>22)</sup>를 전고로 활용하여, 큰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적극적

19) 같은 책, p.1687: “琨詩託意非常, 據暢幽憤, 遠想張陳, 感鴻門·白登之事, 用以激諷. 諷素無奇略, 以常詞酬和, 殊乖琨心, 重以詩贈之, 乃謂琨曰: ‘前篇帝王大志, 非人臣所言矣.’”

20) 《戰國策·秦策》: “梁有懸黎, 楚有和璞, 而爲天下名器.”

21) 《史記》 권32 <齊太公世家>, pp.1477-1478: “呂尙蓋嘗窮困, 年老矣, 以漁釣奸周西伯. 西伯將出獵, 卜之, 曰: ‘所獲非龍非羆, 非虎非羆, 所獲霸王之輔.’ 於是周西伯出獵, 果遇太公於渭之陽, 與語大說.”

22) 《後漢書》 권16 <鄧禹傳>, pp.599-600: “鄧禹, 字仲華, 南陽新野人也. ……及聞光武安集河北, 即杖策北渡, 追及於鄴. 光武見之甚驩, ……因令左右號禹曰鄧將軍. 常宿止於中, 與定計議.”

으로 펼치는 신하를 나타내고 있다. 7,8 두 구는 漢 고조가 흉노를 공격하다가 白登山(山西省 大同縣 동쪽)에서 7일이나 포위되어 있다가 陳平의 奇計로 포위를 풀고 탈출하여 曲逆(지금의 河北省 完縣 동남)에 이르러 진평의 공을 기려 곡역후로 봉하였다는 이야기<sup>23)</sup>와 項羽가 鴻門(지금의 陝西省 臨潼縣 동쪽)에서 漢 高祖와 연회를 하며 그를 죽이려 하였을 때 張良이 그것을 알고 도피시킨 이야기<sup>24)</sup>를 각각 전고로 활용하여, 제왕의 어려움을 풀어준 훌륭한 신하를 드러내고 있다. 9,10 두 구는 나중에 晉 文公이 된 태자 重耳가 망명 시절에 그를 보좌하였던 狐偃, 趙衰, 顛頡, 魏武子, 司空季子 다섯 신하의 이야기<sup>25)</sup>와 나중에 齊 桓公이 된 小白이 권력다툼에서 반대파에 섰던 管仲의 화살에 허리띠고리가 맞았으나 제후가 된 뒤에 舊怨을 잊고 관중을 등용한 일<sup>26)</sup>을 전고로 사용한 후, 11,12 두 구에서 진 문공과 제 환공이 융성할 수만 있다면 “黨”과 “讎”을 구분하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쓴 일을 말하고 있다. 13,14 두 구는 3-12의 마무리로, 훌륭한 도모로 혼란을 평정하고 흥륭을 이룩한 이들 역사 인물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15-24 열 구는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데 대한 탄식이다. 15,16 두 구는 《論語》에 나오는 공자의 말<sup>27)</sup>을 인용하여 자신의 노쇠함을 말하였다. 17,18 두 구에서는 《左氏傳》과 《周易》의 말<sup>28)</sup>을 인용하여 아무리 “達節”하고 “知命”한 성인이라도 “不憂”할 수 없음을 방어적으로 말

23) 《漢書》 권40 <陳平傳> p.2045: “(陳)平從擊韓王信於代. 至平城, 爲匈奴圍, 七日不得食. 高帝用平奇計, 使單于闕氏解圍以得開. 高帝既出, ……南過曲逆, ……詔御史, 更封平爲曲逆侯.” 같은 책, 권94上 <匈奴傳上> p.3753: “高帝先至平城, 步兵未盡到, 冒頓縱精兵三十餘萬騎圍高帝於白登, 七日.”

24) 《史記》 권7 <項羽本紀> 참조.

25) 《左傳·僖公23年》: “晉公子重耳之及於難也, ……遂奔狄, 從者狐偃·趙衰·顛頡·魏武子·司空季子.”

26) 《左傳·僖公24年》: “寺人披請見(晉侯)……曰: ‘……齊桓公置射鉤, 而使管仲相.’” <杜預注>: “乾時之役, 管仲射桓公中帶鉤.”

27) 《論語·述而》: “子曰: ‘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

28) 《左傳·成公15年》: “曹子臧曰: 前志有之, 曰: ‘聖達節.’” 《周易·繫辭傳上》: “樂天知命, 故不憂.”

한 후, 19,20 두 구에서 《公羊傳》의 기록을 전고로 활용하여<sup>29)</sup> 성인의 典範인 공자조차 “獲麟”에 눈물을 흘렸음을 말하고 있다. 21-24 네 구는 功業도 이룩하지 못한 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신의 폐부에서 우려 나오는 탄식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25-30 여섯 구는 형상적인 비유로써 국가의 패망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25,26 두 구는 “朱實”과 “繁英”이라는 시인의 이상이 “素秋”의 “勁風”이라는 험난한 현실 앞에 꺾여버렸음을 말하고, 27,28 두 구는 좁은 길에 수레가 뒤집어져 말이 놀라고 끌채가 부러지듯이 국가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었음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는 백 번을 달군 강철처럼 굳건한 시인의 의기가 손가락의 부드러운 반지처럼 소침해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훌륭한 인물을 구하여 기울어진 서진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나 그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시인의 심정이 많은 전고와 형상적인 비유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晉書·劉琨傳》의 기록에 의하면 스스로 실현할 수 없게된 이러한 의지와 포부를 노심이 대신 실현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結語

淸初 三大師의 한 사람인 王夫之(1619~1692)는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지은 <自題墓石>에서 明나라 유신으로서 유곤의 孤憤을 안았지만 이를 수 없는 운명이었노라고 한 바 있다.<sup>30)</sup> 이는 유곤이 서진의 관리로서 소수민족에게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고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점을 자신의 형편으로 공감한 데서 나온 표현일 것이

29) 《公羊傳》：“(哀公)十有四年春，西狩獲麟。何以書？記異也。……孔子曰：‘孰謂來哉！孰謂來哉！’反袂拭面，涕沾袍。……孔子曰：‘吾道窮矣。’”

30) 王夫之, <自題墓石>：“有明遺臣行人王夫之，……自爲銘曰：抱劉越石之孤憤，而命無從致。”(徐麟, <試析暮年王夫之的劉琨情結> p.10에서 재인용.)

다. 이처럼 并州刺史가 되어 晉陽으로 부임한 이후의 유곤의 후반생은 전란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러한 처절한 인생 체험을 바탕으로 깔고 전란의 참상과 靜亂의 의지를 읊었고(<扶風歌>), 조국의 멸망을 목도하고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채 포부를 접어야 하는 좌절감을 토로하였기(<重贈盧諶>) 때문에, 그의 시는 현언시가 유행하던 서진 말기 시단의 일반적 조류를 벗어나 비장하고 悽戾한 풍격을 지녀 이른바 建安風骨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劉勰이 “아정하고 웅장하면서도 풍유가 많다.”<sup>31)</sup>고 하였고, 劉熙載가 “유정과 좌사는 웅장하기는 하지만 슬프지 않고, 왕찬과 반악은 슬프기는 하지만 웅장하지 않는데, 슬픔과 웅장함을 겸한 이는 아마도 오직 유곤뿐인 것 같다.”<sup>32)</sup>라고 평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 《文選(上)》(서울: 正文社), 1983. 9.  
 《文選(三·詩騷編)》(東京: 集英社), 1983. 3.  
 陳 沆, 《詩比興箋》(香港: 中華書局), 1965. 4.  
 汪紹楹 校, 《藝文類聚(上)》(上海: 上海古籍), 1982. 1.  
 逯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中)》(北京: 中華書局), 1984. 12.  
 北京大學中國文學史教研室 選注, 《魏晉南北朝文學史參考資料(上冊)》(北京: 中華書局), 1978. 2.  
 人民文學出版社 編, 《漢魏六朝詩歌鑑賞集》(北京: 人民文學), 1985. 7.  
 李文初 編著, 《漢魏六朝詩歌賞析》(信宜: 廣東人民), 1986. 4.

31) 《文心雕龍·才略》: “劉琨雅壯而多風.”

32) 《藝概·詩概》: “劉公幹·左太沖詩壯而不悲, 王仲宣·潘安仁悲而不壯, 兼悲壯者, 其惟劉越石乎?”

- 張 溥,《漢魏六朝百三家集題辭注》(北京:人民文學),1981. 8.  
李徽教,《詩品微注》(대구:영남대학교출판부),1983. 5.  
周振甫,《文心雕龍今譯》(北京:中華書局),2004. 1.  
《史記》(영인본; 서울:景仁文化社),1975. 6.  
《漢書》(영인본; 서울:景仁文化社),1975. 11.  
《後漢書》(영인본; 서울:景仁文化社)  
《晉書》(영인본; 서울:景仁文化社),1977. 4.  
《論語》(영인본;臺北:大化書局),1977. 10.  
《左傳》(영인본;臺北:大化書局),1977. 10.  
《公羊傳》(영인본;臺北:大化書局),1977. 10.  
王鍾陵,《中國中古詩歌史》(淮陰:江蘇教育),1988. 5.  
喻 斌,〈劉琨盧諶贈答詩考辨〉,《武當學刊(哲學社會科學版)》15: 1,1995. 3.  
徐 麟,〈試析暮年王夫之的劉琨情結〉,《船山學刊》2000年 3期  
劉國石,〈評劉琨〉,《史學集刊》4,2002. 10.  
馬世年,〈劉琨詩考論〉,《甘肅社會科學》2003年 2期

### 〈中文提要〉

劉琨(271~318),字越石,中山魏昌人。他年輕時便富有豪氣,愛好老莊,但無特立獨行的高氣大節,只從石崇等人,以文才降節事奉權貴賈謐,被稱為“二十四友”。懷帝永嘉元年(307),出任并州刺史以後,劉琨生平便發生了極大變化。從此以後,他後半生與劉淵·劉聰·石勒等人對抗,始終秉持匡復山河·扶持晉室的目標。但結果不僅其目標未能實現,終其身亦為單匹磾所殺。

劉琨存詩不多,其中〈扶風歌〉一首,是他出任并州刺史時所作,寫出途中所見所感,表達了其憂憤之情。〈贈盧諶〉一首是他被單匹磾所囚禁時寫給其部屬盧諶的詩,詩中“託意非常,攄暢幽憤,遠想張(良)·陳(平),感鴻門·白登之事,用以激諶。”(《晉書·劉琨傳》)此兩詩“善為悽戾之詞,自有清拔之氣”

(《詩品·中品》), “雅壯而多風”(《文心雕龍·才略》), “兼悲壯者”(《藝概·詩概》), 乃爲其傳世之名作.

주제어 : 劉琨, 扶風歌, 贈盧諶

K C I